

닭고기 가공품 수출의 길은 없는가?



강창원

-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 닭수출 연구사업단 단장
- 본지 편집위원

1990년대 들어 UR 협상이 종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되면서 수입자유화의 거센 풍랑에 제일먼저 노출된 축산물은 계육을 포함한 가금육이었다. 그러나 우리 양계업계는 이 거세한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산업계의 구조조정, 생산의 기계화와 자동화, HACCP인증, 브랜드화 등의 산업전략과 노력을 통하여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내시장을 지켜왔다. 그런데 그 후 FTA 협정, DDA 협상 등으로 자유무역체제는 더욱 확대되고 가속화되어 우리 양계업계가 감당하기조차 힘겨운 때에 세계적인 곡물부족,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상승의 결과로 사료비의 폭등이라는 격랑 앞에 놓여있다. 게다가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레인지(HPAI) 발생에 따른 안전성에 대한 과민반응과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 등으로 우리가금육 생산업계는 내일을 알 수 없는 혼란과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금융이 안정되고 경기가 호전되어 소비자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오히려 이처럼 요동치는 변화의 시대에 지금까지의 방어적이고 일방적인 산업전략에서 벗어나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육과 가공제품의 해외 수출이라는 공격적이고, 다양한 산업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가금육류 수출이 가져다주는 이 점은 단순히 닭고기수입에서 초래되는 무역적자를 완화시키는데 있지 않고, 우리 가금육산업이 갖는 계절성을 극복하고 약간의 공급과잉에도 가격이 폭락하는 수급의 비탄력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변화라는 영어단어 Change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 즉 기회가 되듯이 오늘의 가금육산업이 지닌 취약점을 가금제품 수출이라는 공격적인 전략으로써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발전을 위한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가금육 수출규모의 변화를 보면 2000년도에 약 2천톤에 450만 달러에 불과하였고, 그 후 서서히 수출증가세를 보여 전년도인 2007년에는 물량으로는 5천톤 이상 그리고 금액으로는 9백만 달러가량으로 2000년도에 비해 두 배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출액은 1천만달러에도 미달되어 다른 공산품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수출 농산품에 비해서도 아직은 소규모에 불과하다. 그리고 수출되는 가금육류 중 대부분은 닭고기가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물량 대비 수출물량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2006년도까지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특히 2004년도 닭고기 수출이 매우 저조했던 것은 우리나라에

HPAI 발생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부터 가금육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가금육 해외수출은 HPAI나 뉴캐슬병(ND)과 같은 질병발생시 수출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삼계탕과 같은 가열제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삼계탕의 수출은 아직 규모면에서는 작지만 국내의 질병발생과 관계없이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런데 삼계탕의 수출국별 분포를 보면 60% 이상이 일본에 국한되었고, 그 다음이 홍콩이었다. 미국에는 삼계탕 수출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며 금년 10월에 들어서야 미국내 삼계탕 수출의 문을 열기 위해 미국검열단의 방한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닭고기 및 가공제품의 대외수출은 극히 저조한데 비해 우리나라 주변에는 거대한 닭고기 소비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즉 우리주변국인 러시아, 일본, 중국, 홍콩은 세계 닭고기 수입량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닭고기 수입시장을 이루고 있다. 즉 2007년도 교역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닭고기 교역량이 약 535만톤인데 이들 4개국의 수입량이 260만톤으로 전체 교역량의 49%에 달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주위에 거대한 닭고기수입시장이 있는 관계로 기업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가금육수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내외적인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라별로 소비성향과 음식문화 및 각종 규제와 제도의 차이가 다양한 관계로 수출제약 원인 또한 복잡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대상국이나 지역 및 품목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

금년 9월부터 농수산식품부 지원으로 농림기술 연구센터(ARPC) 관리하에 닭수출 연구사업단이 발족되었다. 본 수출 연구사업단은 닭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 닭 및 닭고기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신선계육 및 계육부산물 등 한국적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고부가가치 관련제품의 해외 수출의 새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본 사업단에서는 네 개의 핵심연구과제 즉 수출대상국에 대한 시장 조사와 검역·위생대책 및 국가 정책지원 등의 수출 전략 수립, 안전가금육생산 기술개발, 포장 및 물류기술개발, 고품질·고부가가치 양계가공식품 개발을 5년간에 걸쳐 수행하게 된다. 아직은 사업단이 출발단계에 있는 고로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시장상황과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시장을 세분화하고 각 시장에 적절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전략을 구사하되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우리 계육제품의 수출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식품내 멜라민 혼입에 따른 전 세계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인 만큼 우리나라 상품은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관계로 우리나라 가금육 및 가공제품으로써도 수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아시아지역의 한류열풍 또한 우리 식품홍보에 좋은 기회이며, 정부의 농산물 수출지원정책은 계육 및 관련 식품의 수출에 호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양계업계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성공적인 닭수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양계**